

대선캠프 세 불리기... 文·安 영입 전쟁

文측, 박영선 합류... “정운찬·김현철 영입 성사단계”

安측, 정균환·김종배·정상용 등 전 의원 13명 영입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의 각계 인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양측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상도동계’ 인사들의 영입을 위해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막판 진통을 겪었던 박영선 의원의 선대위 합류 결정으로 사실상 옹공로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했고, 국민의당은 호남 민심 구애에 방점을 두며 호남 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文**. 옹공로 선대위 완성=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비문(비문재인)인사인 박영선 의원이 16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에 전격 합류해 중책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과정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의 의원멘토단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지난 7일 당에서 발표한 공동선대위원장 명단에 포함됐으나, “정식으로 연락받은 적 없다”며 캠프 합류하지 않은 상태였고, 일각에서는 탈당설마저 불거졌다.

이에 문 후보는 지난 14일 밤 박 의원과 2시간30분 가량 만찬 회동을 하고 “완벽

해달라. 도와달라”고 간곡히 설득하는 등 ‘삼고초려’ 끝에 선대위 합류를 이끌어 냈다. 이 자리에는 최근 탈당설이 불거졌던 이철호도 있었다. 특히 양측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가신그룹인 ‘상도동계’ 인사들의 영입을 위해 사활을 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저는 오늘부터 문재인 후보의 압도적 승리와 국민 통합을 위해 후보와 함께 전국의 방방곡곡을 누빌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처한 절대 위기를 절대 기회로 바꾸기 위해선 통합이 곧 미래이고, 희망이다”면서 “국민통합, 국가개혁, 통합정부 등의 어젠다를 놓고 문 후보와 충분히 협의했고, 그 결과 문 후보의 결연한 통합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선대위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 등에 대한 영입도 거의 성사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는 등 중도확장을 겨냥한 문 후보의 영입행보가 가속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최근 대선 불출마를 밝힌 바 있다.

앞서 문 후보는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고

문에 조운제 서강대 교수를 추가로 임명했다. 조 교수는 문 후보 측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소장을 맡고 있다.

문 후보 측은 또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 인사들을 선대위에 합류시켰다.

◇**安**. 수권 능력과 호남구애 방침=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지난 14일 박상규·이상일 전 의원, 서유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도왔던 인사 및 아권 출신 정치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박지원 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이찬열 인재영입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와 당사에서 2차례에 걸쳐 총 40명에 달하는 영입 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또 선대위 고문으로 활동하기로 약속했던 4인의 정균환 전 의원과 호남 출신으로 5선 의원을 지낸 김영진 전 의원을 비롯해 정상용·김종배·전숙자·송훈석·실승웅·조한천 등 아권 전직 의원 13명이 대거 합류했다.

박상규 전 의원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지냈으며 반 전 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이상일 전 의원은 반 전 총장의 정부특보를 지냈다. 서 전 장관도 반 전 총장 지지 모임인 ‘인망(人望) 포럼’ 상임대표를 지냈다.

김기재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윤원중 전 국회 사무총장, 조영재 전 주이탈리아 대사, 이영하 전 공군 교육사령관 등 관료 및 군(軍) 출신 인사도 추가로 발을 들였다.

비정리권 인사로는 김당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이 특보로 영입돼 눈길을 끌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로 했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인재영입위원장, 김수공 전 농협유통 이사장은 농어촌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영입됐다.

아울러 임재재 전 주베트남 대사와 이상국 전 KBO 사무총장, 조유태 전 KT 부사장, 민영삼 시사평론가, 이재립 전 호건교, 이아회 회장, 이봉원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 등이 특보를 맡게 됐다.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문성준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최근까지 현직에 있다가 입당을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박 위원장은 밝혔다.

한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지지모임인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중앙회’가 지난 14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이날 초반 전 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와 ‘글로벌 시민포럼’도 안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최권일기자 cki@연합뉴스

문재인 40%·안철수 37%...각 2%p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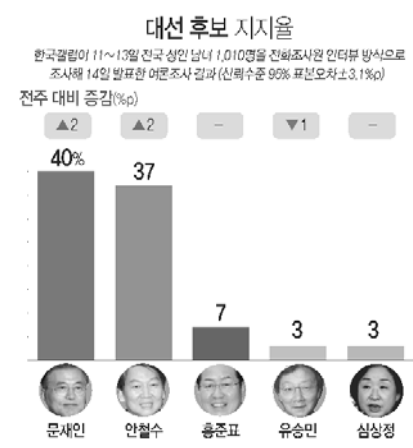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1, 2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문 후보는 40%를 기록하고 안 후보는 37%로 문 후보를 바짝 추격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지난주보다 각각 2%포인트 상승하면서 ‘양강 구도’를 유지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3%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목표표당 사례 수는 지난 1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



역·성·연령별 가중 처리한 인원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사퇴는 없다”... 유승민, 대선 완주 의지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측은 16일 당내에서 유 후보에 대한 사퇴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스스로 낡은 기득권조차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에 대항한 최소한의 엄치조차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 중앙선대위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유 후보는 국민과 당원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뽑은 정당성 있는 바른정당 대선후보다. 어제 후보등록하고 오늘 공식 선거운동 코앞에 둔 시점에 사퇴 운운은 부도덕하고 제정신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언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또 “사퇴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총을 열어 후보 사퇴를 포함한 당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당 대 당 통합은 아니더라도 바른정당 의원들이 안철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 고한다”면서 “지금 유 후보는 어떤 정치인도 가 못했던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한다. 그 길이 아무리 외롭고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국민 여러분만 보고 의연하게 용감하게 갈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후보의 중앙선대위 부위원장인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유 후보에 대해 “4월 29일(투표일) 인쇄 시기)까지 기다려보고 상황(지지율)이 나아지지 않으면 후보에게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선 그은 이희호 “동교동 오지 마세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는 지난 14일 “정치적 중립을 원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접견을 사양한다”고 밝혔다.

이 여사 측 윤철구 김대중평화센터 사무총장은 이날 “여러 대선 후보들이 예상을 요청했지만, 이사장님께서서는 정중히 사양하셨고 앞으로도 그러기로 했

다”며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대신 전한다”고 말했다.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각 당 후보들은 당 경선을 마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된 뒤 이 여사 측에 예방 의사를 표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사무총장은 “이사장님께서서는 정치적 중립 의사를 표명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영혼 없는 사과” vs “문유라”

文·安 주말 내내 가족 공방

5·9 대선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주말·휴일인 15~16일에도 상대후보 가족과 관련한 의혹을 문제삼으며 거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국회 보좌진 사적 동원’ 문제를 물고 늘어졌고,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부인의 공공보육 관련 발언과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문 후보 선대위 윤관석 공보단장은 지난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 후보가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국회 보좌진 사적 동원 비판을 받는 부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면서 “보좌진이나 국민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 부인이 국민의당 통해 전달한 사과문은 ‘업무 부담을 준 정도가 무슨 문제냐’는 인식이 깔린 영혼 없는 사과였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 측은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유라’ 취업비리를 밝히기 위해서 환노위를 열어



김정숙·김미경 광주시 약속 행사 모습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부인 김정숙(오른쪽) 여사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왼쪽)이 16일 오후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정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또 준용씨와 함께 고용정보원에 입사했던 김모씨에 대해서도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김모

씨는 준용씨보다 더 늦게 응시원서를 낸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부인 김정숙씨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김씨가 기자들에게 ‘누리과정

을 통해 길러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다’, ‘그렇게 키우면 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면서 “문 후보와 김씨는 공공보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정기자 jkpark@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